

조성에 기초한 코드 스케일의 적용과 사용법 연구 -즉흥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학습법-

윤두영, 조태선*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

Study on How To Apply and Use the Available Scale Based on Diatonic Scale -For Beginning Improvising Musician-

Du-Young Yoon, Tae-Seon Cho*
Dept of Applied Music, Choongwoon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초, 중급 연주자들이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코드 진행에 대응해 각 코드에 최적화된 코드 스케일을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연구이다. 초, 중급 연주자들이 즉흥연주와 이론을 배우고 익힐 때 미숙한 지식과 정리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수없이 혼란한 상황들에 부딪히게 된다. 코드 진행을 분석하고 Chord Scale (Available scale)을 연습하는 과정에서 스케일에 대한 개념과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좀 더 효과적으로 코드 진행에 대응해 각 코드에 최적화된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는 학습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느낀다. 이 논문은 코드에 대응해 모드에 기초해 개별적으로 Available scale을 사용해 연주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성에 기초해 스케일을 유출해 가는 방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Chord Tone과 Tension의 결합으로 Diatonic Scale을 유출해내는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본다. 그 후 Secondary & Non-Diatonic Dominant Chord와 2차 대리 Dominant 코드에 대응한 코드 스케일 사용방법들에 대해 알아본다. Guide Tone을 활용한 즉흥연주와 조성에 기초한 코드 스케일과의 연관성을 실용례를 통하여 증명하고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how a beginning and intermediate improviser can learn and utilize the optimized chord scale for each chord by corresponding to chord progression more easily and efficiently. When inexperienced performers learn and master solos and theories, they face countless confusing situations because of inexperienced knowledge and disorganized information in practicing and using available scales. For this reason, there is a need to study a learning method that enables inexperienced improvisers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chord progression and use the available scale optimized for each chord. This study examined ways to use the chord scale based on the key rather than a method of playing individually using available scales based on the modes in response to chords. First, this study examined the basic concept of finding a diatonic scale by combining the chord tone and tension. Subsequently, the study evaluated methods of using the chord scale corresponding to the secondary & non-diatonic dominant chord and the secondary dominant chord. This study proves the association between improvised performance using the guide tone and chord scale based on the tonal key through practical examples and suggests methods that can be used for performance.

Keywords : Chord Progression, Optimized Available Scales, Diatonic Chord, Non- Chord Tone, Tritone, Dominant

*Corresponding Author: Tae-Seon Cho(Choongwoon Univ.)

email: entheos@chungwoon.ac.kr

Received May 26, 2021

Accepted July 2, 2021

Revised June 22, 2021

Published July 31, 2021

1. 서론

스케일이란 장, 단조에 기초해 특정한 규칙에 따라 일정하게 배열된 음들이다. 우리가 연주하고 듣는 대부분 실용음악은 장, 단조에 기반을 둔 조성으로 창작된 음악이다. 조성을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은 토닉이라는 존재이고 토닉을 토대로 해서 스케일이 구성되며, 이러한 스케일은 장조와 단조로 구분된다. 장조와 단조로 구성된 스케일상에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직적으로 음을 쌓아 가면 코드가 형성된다. 이렇게 스케일 상에서 얻어지는 코드를 Diatonic Chord라고 하며 각 음계 상에서 얻어진 Diatonic Chord들은 각기 개별적으로 Tonic과 Sub-Dominant, Dominant로서 주요 기능을 하게 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코드 진행을 형성하게 된다[13].

실용음악에서 단순히 Diatonic Scale 상에서 얻어진 코드들뿐만 아니라 창작된 곡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다이아토닉 이외에 다른 모드나 화성에서 빌려온 코드들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창작곡들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실용음악 학생들은 이론을 학습하게 되고, 기본적인 코드와 스케일의 구조와 기능 대해서 배우게 된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자신의 연주에 적용해 보면서 본인만의 활용 방법들을 찾아가게 된다.

음악이론을 배우고 연주를 학습해 가는 과정에서 메이저와 마이너 음계, 코드의 기본구조와 기능들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게 된다. 또한, 블루스와 Diatonic Chord로 연결된 진행에서 메이저 스케일과 펜타토닉 스케일만을 사용해 무리 없이 연주에 적용하고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Secondary, Extended Dominant, Tritone Substitution, Modal Interchange와 같은 Non-Diatonic적인 복잡한 진행으로 구성된 곡을 마주하게 되면 지금까지 해왔던 메이저와 마이너 스케일의 적용만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다른 방법을 적용해 보기 시작할 것이다. 좀 더 현명한 학습자이거나 코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라면 코드와 코드 구성음을 곡의 조성과의 연관 지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14].

코드와 스케일의 관계에서 이 둘과 조화로운 사운드를 느끼지 못한 채 코드 스케일을 적용해 자유롭게 연주하기는 힘들다. 실용음악 연주 수업에서 스케일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지만 어떻게 스케일을 적용하고 사용해야 하는지 방법을 찾지 못하는 학습자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학생들에게 즉흥연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임무는 아닐 것이다. 모든 연주인에게 어느 정도 레벨의 연주능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노력,

열정이 필요하기도 하다.

필자는 초·중급 연주자들이 좀 더 쉽게 코드 진행에 대해 조성의 기초한 코드 스케일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재즈나 실용음악은 조성의 기초한 곡들이 대부분이나 부분 전조나 대리코드의 사용, 텐션에 의해 변형된 코드 진행을 많이 볼 수 있다. 초급자들도 Diatonic Chord들은 조성의 근거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Non-Diatonic Chords를 만나게 되면 연습과 연주의 흐름을 잃게 된다. 또한 화성적으로 분석이 안 되면 도저히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게 된다.

단순한 해결방법으로는 Diatonic Chord 이외에 변형되고 차용된 코드에 사용할 수 있는 Scale과 Chord-Tone을 알아내는 것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알아냈다고 해도 충분한 연습 없이는 바로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좀 더 쉬운 접근 방법이 있다면 조성의 기초한 Scale을 사용하되 변형된 Chord의 Chord-Tone에서 조성의 없는 음들만을 Diatonic Scale과 조합해 사용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성의 기초한 스케일의 사용방법과 조성 밖에서 차용된 코드에 대응할 수 있는 스케일의 사용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스케일을 생각해 보는 방법에 대해 고찰해 본다[15].

2. 본론

2.1 Chord Scale & Chord T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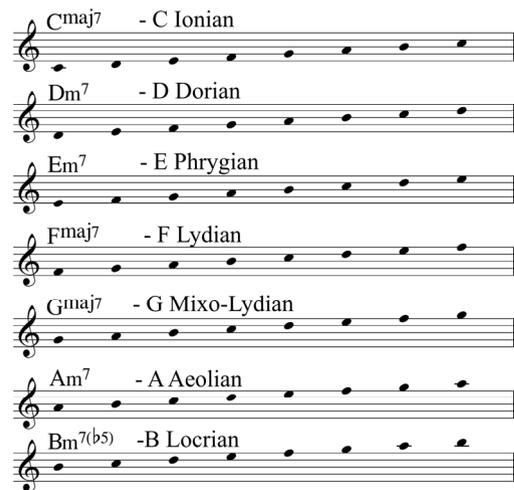


Fig. 1. Seven Modes of C Major Scale

Diatonic Scale은 Octave 내에 5개의 온음과 2개의 반음을 가진 음계 즉 Major Scale과 Natural Minor scale을 의미한다. 서양음악에서는 이 스케일 상에서 3도씩 음을 쌓아 얻어지는 코드들을 Diatonic Chord라고 하며 Diatonic Scale의 개별적인 음들을 주음으로 재배열한 7종류의 기본적인 선법(mode)을 사용한다.

C Major Key에 대해 사용되는 기본 코드 스케일과 7종류의 코드 스케일의 Root를 C 음으로 해 재배열하면 아래 Fig.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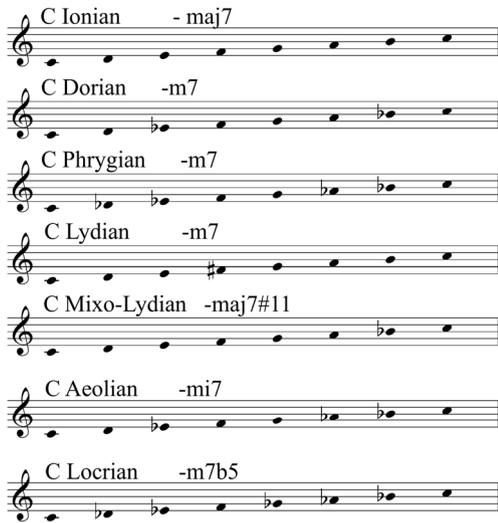


Fig. 2. Rearrange the Scale From the C Root Note

이처럼 장단조에서 다양한 코드의 기초가 되는 스케일을 코드 스케일이라고 하며 코드스케일과 같은 의미로 Available Scale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실용음악과 재즈 곡에서는 Diatonic에 기초한 코드들 외에 Non-Diatonic Chord Tone이 포함된 코드와 멜로디 음들의 사용을 빈번히 접하게 된다.

초보 연주자들도 Major Scale을 익혀서 Diatonic Tonic에 기초한 코드 진행에 대해 무리 없이 멜로디 라인을 만들어갈 수 있다. 반면 Non-Diatonic 코드가 사용되고 Tension 코드들이 사용된 진행들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스케일 선택해야 할지 당황하게 되고 매끄럽지 못한 연주가 되어 버린다. 따라서 곡의 진행에 있어 코드와 코드가 어떻게 연결되고 차용되어 사용된 코드인지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코드에 대응해 적당한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충분한 이론과 실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초보 연주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모든 스케일과 코드를 단기간에 익히고 자유자재로 사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많은 양의 코드 구조를 이해하고 코드 톤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도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이러한 학습활동은 오랜 기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조금 더 쉽게 초보자들도 적절히 코드와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2 Chord Scale & Chord Tone

코드 톤이란 말 그대로 코드의 구성 음을 의미한다. 코드의 구성 음이기 때문에 코드 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료이다. 또한, Diatonic Scale과 반음계적인 프레임즈가 연결되어 안정감 있으면서도 Diatonic 적인 멜로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익혀야 할 코드 구조를 C를 으뜸음으로 해 정리해보면 아래 Table 1과 같다.

Table 1. Structure of Chords & Chords Type

Chord Type	Chord Tone & Degree
C Major6	C, E, G, A -1, 3, 5, 6
C Major7	C, E, G, B -1, 3, 5, 7
C Dominant7	C, E, G, Bb -1, 3, 5, b7
C Dominant7sus4	C, F, G, Bb -1, 4, 5, b7
C Augmented7	C, E, G#, Bb -1, 3, +5, b7
C Minor6	C, Eb, G, A -1, b3, 5, 6
C Minor7	C, Eb, G, Bb -1, b3, 5, b7
C Minor7b5	C, Eb, Gb, Bb -1, b3, b5, b7
C Minor Major7	C, Eb, G, B -1, b3, 5, 7
C Diminished7	C, Eb, Gb, A-1, b3, b5, bb7

Diatonic Scale에서 파생된 7개의 코드 스케일을 코드톤과 결합해 생각해 보면 Fig.3 과 같이 Chord Tone + Tension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1].

Fig. 3에서와 같이 이 전체를 C key로 풀어해 보면 첫 번째 모드 C Ionian Scale = Cmaj.7 + Dm Chord Tone, 두 번째 모드 D Dorian = Dm7 + Em Chord Tone, 세 번째 모드 E Phrygian = Em7 + F Chord Tone, 네 번째 모드 F Lydian = Fmaj.7 + G Chord Tone, 다섯 번째 모드 G Mixo-Lydian = G7 + Am Chord Tone, 여섯 번째 모드 A Aeolian = Am7 + Bdim. Chord Tone, 일곱 번째 모드 B Locrian = Bm7b5 + C Chord Tone으로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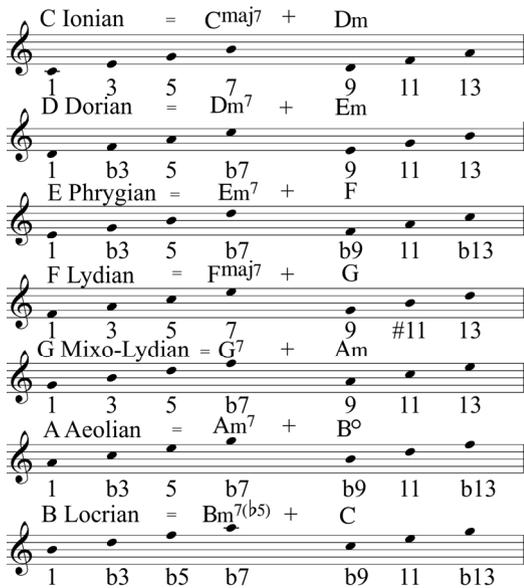


Fig. 3. Seven Modes of C Major Scale & combination with Chord Tone

코드 스케일은 코드의 기능에 따라 사용 가능한 Tension과 Avoid Note를 가려 사용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Avoid Note에 절대성을 강조하다 보면 Scale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진다. Avoid Note란 말 그대로 피해야 하는 음이다. 코드의 구성 음 즉 Chord Tone이 Avoid Note와 함께 사용되면 코드 고유의 울림과 충돌해 그 기능이 상실되고 좋지 않은 울림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C Diatonic Scale로 생각해 보면 각 코드의 구성 음 중 코드 이름을 결정하는 근음과 메이저와 마이너를 결정하는 3도 음, 코드의 색채를 더하는 7도 음이 C(도)와 E(미), F(파)로 연결돼서 반음 관계로 불안정한 사운드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Chord Tone(Root, 3도, 7도)과 반음 관계에 있는 음들이 Avoid Note가 된다. C Ionian Scale에서는 네 번째 음 F(파) 음이 Avoid Note로 Cmaj.7의 Chord Tone인 3도 음 E(미)와 반음 관계로 좋지 않은 울림을 만들어 낸다. D Dorian에서는 장6도인 B(시)가 Dm7의 b7도인 C(도)와 반음 관계이다. E Phrygian에서는 b2도인 F(파)가 Root인 E(미)와 b6도인 C(도)가 Em7의 5도인 B(와) 충돌한다. F Lydian에선 Avoid Note가 없다. G Mixo-Lydian에선 완전 4도인 C(도)가 G7의 3도인 B(시)와 반음 관계이다. A Aeolian에서는 b6도인 F(파)가 Am7의 3도인 C(도)와 부딪힌다. B Locrian에서는 b2도 음인 C(도)가 반음으로 충돌한다.

이 Avoid Note들을 피해 각각의 코드들이 사용할 수 Tension Note들이 정해질 수 있다. 이를테면 I도 코드인 Cmaj.7에는 11th 음인 F(파)가 3도인 E(미)와 충돌하므로 Tension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IIIIm7인 Em7에는 근음과 반음 간격에 있는 F(파)를 b9th Tension Note로 사용하지 않는다. 처음 연주 연습을 하다 보면 무작정 외우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단지 막연히 Avoid Note와 사용 가능한 Tension Note를 외우기보다는 Diatonic Scale과 그에 따른 Chord Scale들의 관계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2.3 곡의 코드 진행 분석

숙련된 재즈 연주인들은 코드와 멜로디로 작성된 Lead Sheet만으로 훌륭한 즉흥연주를 한다. 물론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박식한 이론적 지식의 습득과 상당한 양의 연습, 다양한 환경에서의 현장경험 등이 축적되어 노련한 연주인이 만들어질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 Diatonic Scale을 중심으로 초보자들이 즉흥연주를 연습하는 데 있어서 곡의 코드 진행을 분석하고 Scale을 적용해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먼저 조성에 기초한 Chord Scale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곡의 Key를 구분해야 한다. 대체로 곡에서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특정한 조성을 느낄 수 있기 마련인데 조성을 느낄 수 있는 최대의 조건은 토닉이라는 존재이다. 토닉을 토대로 해서 스케일이 구성되며 이러한 스케일은 장조와 단조로 구분된다. 이 조성을 토대로 Chord Scale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재즈 스탠다드 화성 진행에는 부분 전조나 II-V 진행이 많이 사용되며 Modal Interchange, Tritone Substitution과 같은 대리 기능을 하는 코드들로 구성된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된 코드 간의 관계와 출처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 Fig. 4는 재즈 스탠다드 “Fly Me To The Moon”의 1~16 마디 시작 부분이며 곡의 코드 진행과 각 코드에 대응해 사용할 수 있는 Chord Scale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C Key 곡으로 1~6마디까지는 모두 C Diatonic Chord들로 구성돼 있으므로 메이저 스케일에서 파생된 Chord Scale들을 적용하면 된다. 일곱 번째 마디의 E7 코드와 여덟 번째 마디 세 번째 박의 A7 코드는 C Key의 Diatonic Chord에 대응하는 Secondary Dominant Chord이다. E7 코드는 다음 마디의 Am에 대한 Dominant이기 때문에 A Harmonic Minor의 다섯 번째 모드인 E Mixo-Lydian b9b13 (A

Harmonic Minor) 이 적용될 수 있다. A7 악보에는 없지만 Dm로 연결되는 Secondary Dominant Chord이므로 D Melodic Minor의 다섯 번째 모드인 A Mixo-Lydian b13(D Melodic Minor) Scale을 사용할 수 있다[5].

이러한 분석은 통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들을 찾아낼 수 있고 좀 더 자유롭게 스케일들을 구사할 수 있는 연주자들에게는 일반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자유롭게 스케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초급자들에게는 아주 먼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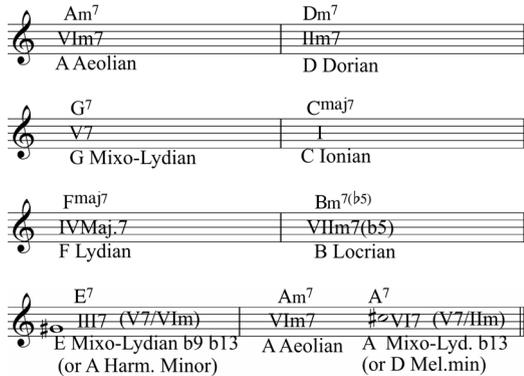


Fig. 4. Chord Progression And Available Scale For “Fly Me To The Moon-Measure of 1 to 16”

초급자들도 좀 더 쉽게 Chord Scale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곡 전반에 걸쳐 Diatonic Chord에 해당하는 코드는 조성의 중심 Scale을 사용하고 Non-Diatonic Chord에는 조성 상에서 없는 음만을 교체해 사용하게 되면 개별적인 코드에 적합한 Chord Scale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Scale의 사용에 쉽게 응용할 수 있다. 반면 조금 단조로운 라인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하다.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조성을 기초로 한 Diatonic Scale과 Chord Tone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Chord Scale의 느낌과 화음 진행상의 코드 사운드를 잘 살릴 수 있다. 여기에 더해 Chord Tone을 반응계적으로 연결해 사용하게 되면 좀 더 재즈다운 멜로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코드 스케일의 느낌을 알 수 있게 되고 코드와 스케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7].

Fig. 5 악보는 “Fly Me To The moon”의 후반부 16마디 코드 진행으로 Chord Scale을 적용해 즉흥연주를 해볼 수 있는 예시이다. C Major Key이므로 전체적으

로 C Major Scale을 사용해 연주하되 코드 진행의 흐름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Chord Tone을 추가시켜서 연주해야 Chord Scale 적인 느낌을 표현할 수 있다. 일곱 번째 마디와 열여섯 번째 마디의 E7의 3도 음이 G#이므로 G음 대신 G#으로 바꿔주면 E Mixo-Lydian b9b13 또는 A Harmonic Minor Scale과 같은 구성 음이 된다. 여덟 번째 마디 A7의 3도 음도 C Major Scale에 없는 음이므로 C 대신 C# 으로 바꿔주면 A Mixo-Lydian b13 Scale 또는 D Melodic Minor Scale과 같은 구성 음을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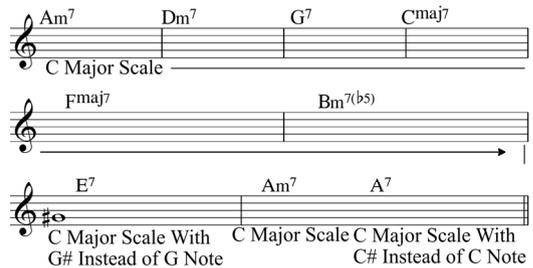


Fig. 5. Chord Progression And Available Scale For “Fly Me To The Moon- Measure of 17 to 32”

초급자들이 코드 진행을 분석하면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 중의 하나가 Non-Diatonic Chord의 출처와 사용할 수 있는 스케일을 알아내는 것이다. 이는 대부분 Secondary, Extended Dominant, Triton Substitution, Modal Interchange와 관계된 코드들일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연주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들이나 앞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Chord Scale과 연계해 분석해보며 다음과 같은 관계를 알 수 있다[8].

2.4 Secondary Dominant

V7의 특징적인 기능은 Dominant Motion에 의하여 I로 해결됨으로써 강한 흐름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Secondary Dominant는 Tonic 코드로 진행하는 V7(G7)을 제외하고 Diatonic 상에서 각각의 Scale 음들을 임시 Tonic Root로 가정하고 V7과 같이 Dominant Motion이 만들어지도록 생성된 이차적 Dominant 7th 코드를 말한다. 임의로 연결된 Secondary Dominant 진행으로 연결된 각 Diatonic Chord는 순간적으로 새로운 조성의 토닉처럼 들리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9].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Major Key에서는 각 5개의 Secondary Dominant(I7, II7, III7, VI7, VII7)가 존재한다. 다음의 악보에서 알 수 있듯이 VII_m7b5 코드와 완전 5도는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음이다. 이를테면 C key에서 B_m7b5에 대응하는 Dominant는 F#7이 되는데 F#음은 C 메이저 스케일에 없는 음이기 때문에 Secondary Dominant가 존재하지 않는다.

Fig. 6. Secondary Dominant In C Key

Fig. 7과 같이 Secondary Chord에 사용할 수 있는 Chord Scale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모두 구성 음은 같지만, Scale의 이름은 Dominant 7 Chord가 향해가는 Tonic Key Scale, Chord의 Root Name에서 시작된 Scale, C Diatonic으로 유출해낸 Scale로 정해질 수 있다[3].

Fig. 7. Available Scales For Secondary Dominant

2.5 Triton Substitution (Dominant 7th의 2차 대리코드)

때때로 V7의 대리코드로서 VII_m7b5 코드가 사용된

다. VII_m7b5 보다 빈번히 V7의 대리코드로 사용되는 코드는 bII7 코드이다. 도미넌트 코드의 특징은 3도 음과 7도 음 사이에서 발생하는 증4도 간격의 음정인 Tritone이다. 이러한 이유로 bII7과 VII_m7b5 코드는 V7코드와 같은 Tritone 음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Dominant Chord의 대리로서 사용된다. Fig. 8과 Fig. 9는 이에 대한 설명이다.

Fig. 8. Common Notes Of Secondary Dominant & Tritone Substitution

Fig. 9. Secondary Dominant & Tritone Substitution

2.6 Dominant 7 Chord With Non-Diatonic Root

Diatonic에 속하지 않는 Tritone Substitution Dominant Chord에는 해당 Chord의 5도에서 시작되는 Melodic Minor Scale을 사용한다. 이 Scale은 Tension 음으로 9, #11, 13을 포함한다. Unaltered Dominant Chord는 b9, #9, b5, #5(b13)과 같은 Tension 음들을 포함하지 않는 Chord를 의미하며 Dominant와 Secondary Dominant에 대한 Tritone Substitution Chord들(bII7, bIII7, bV7, bVI7, bVII7)은 Unaltered Dominant Chord에 해당한다[10].

Major Scale과 가장 비슷한 Minor Scale은 Melodic Minor Scale이며 이 Scale의 4번째 Mode가 #11th가 포함된 Lydian Dominant Scale이다. Secondary Dominant는 각 Diatonic Chord들을 Tonic으로 가정하고 사용되는 Dominant Chord이기 때문에 Melodic Minor의 Dominant Scale에 해당하는 4번째 Mode가 적합할 수 있다. Dominant Chord

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Scale로 Altered Scale과 Lydian Dominant Scale은 시작 음만 다르고 Scale의 구성 음이 같다. 다음의 예에서 G Altered Scale이 Ab Melodic Minor Scale, Db Lydian Dominant Scale이 같은 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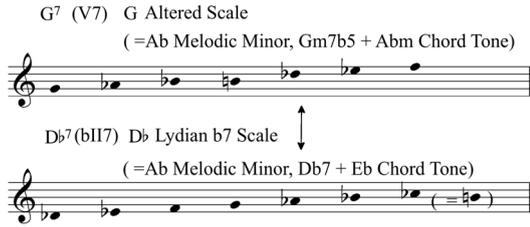


Fig. 10. Comparison of Altered Scale & Lydian Dominant Scale

Fig. 11은 Tritone Substitution Chord들(bII7, bIII7, bV7, bVI7, bVII7)에 사용될 수 있는 Lydian Dominant Scale과 서로 교환해 생각할 수 있는 5도 위 음에서 시작하는 Melodic Minor Scale을 정리한 것이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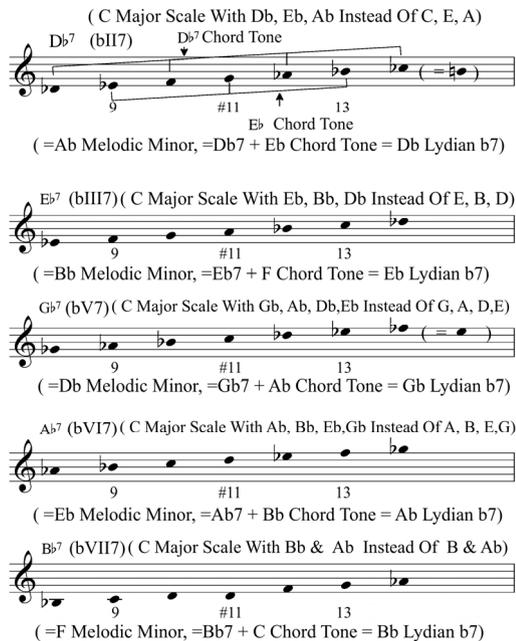


Fig. 11. Comparison of Lydian Dominant, Melodic Minor Scale & Chords Tone

2.7 Guide Tone

초급자들도 즉흥연주를 할 때 Solo Phrase가 스토리

가 있고 논리적이게 연주하는 방법의 하나로 Guide Tone을 사용하는 것이다.

Guide Tone은 Chord 진행상 Chord의 흐름과 율곡을 뚜렷이 나타내며 Chord의 Tonality를 명시해주는 중요한 음들이다. Chord Tone의 3도와 7도가 주로 Guide Tone이며 때로는 5도 음이나 Tension Note가 될 수도 있다. 3도 음은 Major와 Minor Chord의 사운드를 결정지어 주는 음이고 7도 음은 코드의 구성 음 중 가장 불안정한 음으로 Major 7th, Minor 7th, Dominant 7th 인지를 암시해준다[7].

Guide Tone은 주로 반음 간격으로 Chord의 3도 음에서 다음 Chord의 7도 음으로, 7도 음에서 다음 Chord의 3도 음으로 연결되어 Chord 진행의 긴장과 해결을 분명히 해준다. 즉흥연주 시 3도와 7도 음을 강조해 Guide Tone으로 사용하게 되면 멜로디 프레이즈에서도 코드의 흐름이 잘 표현될 수 있다. Fig. 12는 재즈 스탠다드 곡으로 많이 연주되는 “Fly Me To The Moon”의 코드 진행이다. 악보를 보면 3도와 7도 음을 중심으로 Guide Tone이 어떻게 연결돼 가는지 알 수 있다[11].



Fig. 12. Guide Tone Connections “Fly Me To The Moon- Measure of 1 to 16”

Fig. 12 악보는 “Fly Me To The Moon”의 Chord 진행으로 필자가 Guide Tone을 사용해 Solo Line을 만들어본 것이다. 강박인 마디의 시작과 약박인 마디의 마지막 박에 Guide Tone으로 3도와 7도를 배치해 Solo Line을 구성해 보았다. 조성에 기초해 Major Scale을 전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Chord Tone과 Arpeggio 중간에 Chromatic Note를 사용해 연결해 보았다[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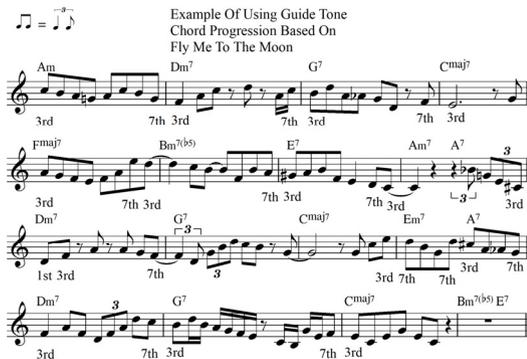


Fig. 13. Example Of Guide Tone With Solo Line

3. Discussion

급속한 경제성장만큼 한국의 실용음악은 빠르게 발전 되어왔다. 미디어 환경도 크게 전환되어 대부분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음악 전반에 걸쳐 미디어도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 소비되고 유통되고 있다[9].

필자가 제시한 내용은 이처럼 인터넷이나 음악 이론서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주제일 수 있다. 하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연구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연구논문이나 설명을 그렇게 많이 찾아보기 힘들다. 대체로 이론서나 교칙본에서는 스케일의 개요와 구성 원리에 관해서 설명한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실용적으로 연주에 적용하기 힘든 면을 가지고 있다[12].

필자도 연주인으로서 오랜 기간 악기를 익히면서 다양한 연주법과 방법들을 찾아 헤맸던 경험이 있다. 특별히 즉흥연주를 배우면서 스케일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서 어떤 스케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용해 연주해야 하는지, 수없이 많은 스케일들을 어떻게 익히고 연주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혼돈과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코드에 대응해 스케일을 종합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관해 연구해 보았다.

4. 결론

지금까지 초급자들도 최소한 Major, Minor Scale에 대한 이해와 Diatonic Chord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있다는 전제하에 코드 진행에 대응해 조성을 기초로 스케일을 적용해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물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연주를 위해선 Chord Scale과 Chord와의 관계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습하여야 한다. 교육자 또한, 스케일의 나열에 입각한 기계적인 지도 방법에서 벗어나 조성과 코드와의 상관관계를 학습자에게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단지 “이 코드에서는 이 Scale들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지도만으로는 초급자의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렵다. 여기서 이 코드는 조성 외의 코드(Non-Diatonic Chord)이며 Chord Tone 중에서 어떤 음이 조성에는 없는 음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특징 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코드에서는 조성을 기반으로 근음에서 시작된 음들과 조성 외의 특징들을 결합해 사용하게 되면 코드에 적합한 Scale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스케일과 코드와의 상관관계, Guide-Tone의 사용, 코드에 대응한 대리코드와 Upper-Structure의 적용 등으로 이어져 학습이 확대 되어야 한다.

재즈에서 즉흥연주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드 진행, 멜로디와 같은 기본 정보만으로 연주자의 생각과 느낌을 순간적으로 표현해야 한다[13]. 음악을 언어의 영역과 많이 비교하듯이 이러한 행위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이나 대화를 함께하는 행위와 비슷하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이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훈련, 연구가 요구된다.

우리가 선호하고 많이 들어왔던 뮤지션들은 각각 본인들만의 개성적인 사운드와 독특한 리듬적 특징, 이야기 전개 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책들을 읽고 쓰고 듣고 경험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고민하고 풀어가듯이 연주자의 과정도 비슷하다. Scale은 규칙적인 음의 배열이며 Chord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것은 즉흥연주를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음의 나열만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단지 기계적인 이해와 단편적인 지식으로 유식한 듯 이야기를 풀어가다 보면 스토리가 꼬이고 논리를 잃어버리기에 십상이다.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할 수 있는 능력 범위에서 잘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더욱더 디지털화되고 정보가 넘쳐나는 사회이다. 필요로 하는 정보나 지식은 어디서나 쉽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실천과 과정이 필

요하다. 음악은 소리로 표현되는 감성적인 예술이다. 책이나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만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좋은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훌륭한 연주들을 찾아 듣고 그들의 이야기 방식과 표현법들을 익히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초·중급 연주인들에게 더욱 보편적이고 실용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연주법들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Taishi Uda, "Jazz Guitar Practice Method For 3 years later" Korean Edition, SRMUSIC, pp.6-41, 61-69, Jan. 2018. Original Edition Published in Japanese By Rittor Music, 2017.
- [2] Jeff Schroedl "Jazz Guitar" Hal Leonard, pp.38-53, 2003.
- [3] Garrison Fewell "Jazz Improvisation For Guitar - Harmonic Approach" Berklee Press, pp.26-65, 2010.
- [4] S.W. Jeon, H.Y. Park.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37 - 46,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037>
- [5] H.G. Kim, Y.H. Kim. Design of a Smart Music Learning Device that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using a transparent touch pan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127 - 132,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27>
- [6] Editorial Department "Popular Music Arranging Method" Shamho ETM, pp.110-117, March 1989.
- [7] Masa Matsuda "Popular Arrange" Korean Edition, Doors, Translation by See & Talk, pp.222-255, May 2011.
- [8] Hal Crook "How To Improvise- An Approach To Practicing Improvisation " Advance Music, 1991
- [9] Du Young, Yoon "Jazz Style Of Bass Performance Technique" Master's Thesis, Dept. of Broadcasting Music, Graduate School of Technology & Business Administration, Chung-woon University, pp.37 Feb. 2014.
- [10] <https://www.thejazzresource.com>
- [11] <http://danhaerle.com/polychordscales.html>
- [12] Y.H. Choi, Tianyi Chen, K.H. Lee, The global response to K-POP idol group 's New Hanbok: The case of Black Pink Fash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533 - 541,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533>
- [13] J.Y. Lee, S.S. Kim, A Study on the Students' Needs for the Improvement of Liberal ArtsCurriculum : Focused on the Case of J University,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7, n12, p545 - 554, 2019
DOI : <https://doi.org/10.14400/JDC.2019.17.12.545>
- [14] K.H. Woo, Kim S.I, A study on User experience Satisfaction Factors of Subscription Servi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9, /pp.331-336, 2020.
DOI : <https://doi.org/10.14400/JDC.2020.18.9.331>
- [15] K.I. Choi, J.I. Lee, Y.A. Yoon, The effect of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welfare project on the school adaptation and mediative effect of social capita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8, pp..485-49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8.485>
- [16] G. Kim, S.U. Yun, H.T. Kim, A Study on the Integration Model of Continuous Intention to Collect K-POP Records Using S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485-49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5.441>
- [17] S.W. Jeon, H.Y. Park. A Survey on the Use of Music by the Baby Boomer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37 - 46,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037>
- [18] H.G. Kim, Y.H. Kim. Design of a Smart Music Learning Device that can interact with each other using a transparent touch panel,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8, n12, p127 - 132,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27>

윤 두 영(Du-Young Yoon)

[정회원]



- 1995년 3월 ~ 현재 : 콘트라 & 일렉베이스 전문 연주인 및 작 편곡가
- 2012년 2월 ~ 현재 : Jazz Band "Frituday" Band Leader
- 2014년 3월 ~ 현재 : 한국예술사관전문학교 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산업대학 인천캠퍼스 실용음악학과 외래교수

<관심분야>

공연 예술, 음악교육

조 태 선(Tae-Seon, Cho)

[종신회원]



- 2010년 2월 : 실용음악학회회장
- 2016년 6월 : 대한가수협회 학술위원회 위원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실용음악교육협의회 회장
- 2019년 8월 ~ 현재 : 한국대중예술융합협회 회장

• 2001년 3월 ~ 현재 : 청운대학교 실용음악과교수

<관심분야>

실용음악, 대중음악, K-POP, 보컬